

제1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5. 28. (목) 10:30 ~ 12:40
장 소	전주시청 4층, 회의실
참 석 자	이양재 위원장 등 11명 (재적인원 11명 전원 참석)
주요내용	○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 설명 ○ 사전준비위원회 경과보고 ○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 ○ 차기 회의 일정
회의결과	○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위원장 :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이양재 - 간 사 :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이정현 ○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 - 회의 결과 : 공개 원칙 - 시청 홈페이지에 공론화 관련 별도 공간 운영 - 회의 종료 후 익일 언론 브리핑 정례화 ○ 차기 회의 일정 - 2020. 6. 12.(금) 09:00 ~ - 도시계획 등 내용 숙지를 위한 워크숍 형태로 진행

제1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 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시 관계자	- 안녕하십니까? 시민의숲 1963 추진단장 김문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 소개,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 설명,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사전준비위원회 경과보고, 공론화 관련 설명, 차기 회의 일정 논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공론화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 기관에서 회의 과정에 대한 촬영 요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위원회에서 촬영한 것처럼 옛 대한방직 현황 설명까지는 촬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 모두	- 괜찮습니다.
시 관계자	- 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공론화위원회 재적인원은 11명으로서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으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투명한 정책 결정을 하고자 사전준비위원회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이신 이양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선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신 오용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명예교수이신 유대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신 엄영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 관계자	현대 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이신 최종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신 이희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내교수이신 이승모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신 김남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이신 이정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연합뉴스 부 본부장이신 홍인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

#.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 설명

발 언 자	발언 내용
시 관계자	- 다음은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과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이지만,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 방향 설정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전준비위원회를 거쳐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민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정책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74년 공장 설립 당시 전주시 외곽에 입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도청, 지방경찰청, KBS전주 방송국, 아파트 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토지조서입니다. 부지면적은 23만㎡, 약 69,700평으로써 주식회사 자광이 약 93.9%를 소유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약 2.7%의 구거 2필지를 전주시에서 약 3.4%의 완충녹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이며,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870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직 문제 등에 따른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며, 막대한 보상비로 인하여 불가피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방직은 2018년말에 완주군 이서지역으로 이전하여 운영해 오다가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

- 옛 대한방직 부지의 현재 사진입니다.
전주 대한방직은 1970년대 초반부터 공장을 설립하여 1974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위하여 2002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 최근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주식회사 자광에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5월 2일 사업계획에 대하여 우리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2018년 5월 10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전라북도 소유의 구거 부지에 대한 사전협의를 필요함을 회신하였습니다.
같은해 10월 18일 자광은 대한방직 측에 계약금 이외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토지소유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11월 1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제안을 우리시에 신청하였고, 2018년 11월 26일 시에서는 사업계획의 내용은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도 소유 토지에 대한 사전협의 시 재산관리청의 의견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2019년 3월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제안 내용중 컨벤션센터를 복합문화센터 또는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신축 후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고, 금년도 본예산에 시민의견수렴 공론화위원회 운영비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전준비위원회를 운영,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자분들 퇴실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발 언 자	발언 내용
시 관계자	- 다음은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분들께서 호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회의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사전준비위원회도 하시고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이신 이양재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모두	- 찬성합니다.
시 관계자	-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이양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이양재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앞으로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 제가 사전준비위원회를 했고 전주시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 관련인 것 같아서 저에게 이런 중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론화인 만큼 좋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공론화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모범적인 사례로 남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사항은 어렵기도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 쉽게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많은 도움주셔서 좋은 결론 내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다음으로 간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본 회의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간사의 역할은 위원회와 행정의 소통 등의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이정현 위원님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네, 이정현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위원 모두	- 없습니다.
위원장	- 네, 그럼 이정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 간단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저희가 5차례 정도 두 달 넘게 논의를 하여 이렇게 공론화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 회의를 추진함에 있어 첫째로 행정에서 기본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기술적 지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도시계획 관련 등 기술지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 두 번째로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사전준비위원회 결과 등을 토대로 먼저 기자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의 결과와 더불어 공론화가 왜 필요한지, 공론화는 무엇인지, 공론화의 쟁점은 무엇인지를 홈페이지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간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회의를 진행하면서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공론화 사전준비위원회 경과보고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다음으로 5차례에 걸쳐 사전준비위원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경과보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	- 안녕하세요. 사전준비위원회 경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준비위원회는 갈등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은 관련 기관에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으며, 공론화 방식 결정 등을 위해 갈등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였고, 공론화 주제가 전주시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자체 선정하여 구성·운영하였습니다. - 활동기간은 2월 18일에서 4월 21일까지로 총 5회에 걸쳐 심도있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전준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적 위치에서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 공론화 방식 결정,

○○○ 위원

-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 확정, 의제 방향에 대한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원회 명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로 저희 위원회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부분입니다.
사전준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연계성을 고려하자는 의견에 따라 사전준비위원회 위원 대부분 공론화위원회에 포함되었고, 내용적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갈등·도시계획·사회경제·회계(감정평가)분야 전문가를 보강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 각 분야별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계나 관련 학회 등에서 2~3배수 추천을 받아 사전준비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 다음 결정사항은 공론화 방식입니다.
이번 공론화는 향후 전주시 도시계획과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결정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의 미래 개발 방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관점이라 생각하여 미래 예측형 공론화 방식인 ‘시나리오워크숍’을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그 이후에 전주의 다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인 타운홀미팅 또는 공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공론화의 큰 틀을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국내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했던 다른 지자체와 국가단위 공론화의 운영 규정을 비교 검토하여 전주시 맞춤형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위원 출석에 관한 사항, 합의의 중요성을 반영한 의결정족수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았고 위원회 검토를 토대로 5월 8일에 방침 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했습니다.
 - 다음, 가장 긴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던 의제 방향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가능성’과 그 ‘세부 개발 방향’, ‘기반시설에 대한 현황’ 및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 가능성’, ‘개발이익 환수 방안’,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상, 사전준비위원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기간도 짧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겠지만, 사전준비위원회에서 상당히 열심히 논의하여 여러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 사전준비위원회 활동 또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초반에 간사님께서 기술지원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전준비위원회에서 확정된 운영 규정 내용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관련 운영지원단에 대한 사항은 있으나,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그 사항에 관하여는 이따가 다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시민공론화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결과대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 저희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취합하고 검토하여 전주시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까지이며, 그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토지소유주가 별도 합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후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	- 사전준비위원회에서 상당히 잘 준비해주신 것 같습니다. - 공론화위원회 추진 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공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전주시민 대다수가 합의하는 미래상을 그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들은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네, 공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이어서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초반에 제안해주신 간사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회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와 이 내용을 어떻게 시민들과 공유하느냐 두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먼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론화 공간을 만들어서 공론화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의 과정과 모든 것을 공개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모두 공개할 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간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 위원	- 회의결과 공개는 당연하지만, 과정까지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매 회의 시 공개의 범위, 정도를 결정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회의 진행 시 외부인이 참여하는 등의 회의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 있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의결과를 공개하되 회의 내용은 경우에 따라 의결을 통해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가 회의에 대한 전체적 공개를 말씀드렸는데 참관 등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회의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정리된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 공론화는 공개가 맞다고 보지만,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은 아니더라도 실명을 밝히지 않는 선에서 회의 과정중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회의록을 정리해서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회의의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해석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과 더불어 매 회의 종료 후 정례 브리핑을 통한 언론 공개,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정리를 해보면, 회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좀 더 상세하게 회의 과정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면 좋겠다는 것과 정례적인 언론 브리핑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 그럼, 언론 브리핑은 몇 차례 정도가 좋을까요?
○○○ 위원	- 저는 매 회의 마다 브리핑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여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두 분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다만, 회의 결과나 세부적인 회의 과정은 사전에 위원회 검토를 거쳐 공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사항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브리핑은 제가 간사님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기 회의 일정 및 내용 논의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다음으로 차기회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준비위원회에서는 격주로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진행했는데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이 공론화 분야에 처음 접하시는 위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기 회의는 이 공론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시간 동안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차기 회의에는 공론화 방식인 시나리오워크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할 참여자들을 구성하는 것과 시나리오워크숍 수행 기관 선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워크숍 참여자들을 어떤 분야의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는지, 그 선정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선정된 참여자들이 논의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작성될 텐데, 이 시나리오들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축약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부분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의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준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놨기 때문에 수행 기관 선정 후 저희 위원회와 논의하여 시나리오 워크숍을 빠르게 설계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네, 차기 회의 때 논의되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나리오워크숍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 참여자 인원 구성과 워크숍 수행 기관 선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다음 회의 때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 위원	- ○○○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를 위한 워크숍 형식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그러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 자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시 관계자	- 네, 시나리오워크숍 진행 시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 도시계획 부분, 대한방직 부지 현황, 기반시설 관련 사항 등은 작성중이며, 추가로 시나리오워크숍 과업지시서도 다음주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 사전준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인 도시계획, 기반시설, 개발이익환수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법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준비를 요청했었는데요. -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 그럼, 다음 회의는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는 워크숍 형태로 상당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다음 회의 일정은 2주일 정도 후 언제가 괜찮을까요?
위원 모두	- 12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6월 12일로 하고 오전 9시부터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기술지원단의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자료 준비나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 용역을 발주하기에는 회의 진행에 시간적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 기술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저희 위원회와 같이 가면서 자료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을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 물론 회의 진행하면서 바로 기술적 의견을 피드백 해주는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론, 워크숍 진행 시 참여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기술적 검토에 대한 의견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워크숍에 관련 전문가들을 몇 분 섭외하여 자문 위원 정도로 참여하는 것이 시간적, 행정적으로도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합니다. - 일단, 행정에서 자료집을 어느 정도 작성중이니 위원님들께서 초안을 보시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더욱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용역을 발주하여 전문적인 기술적 검토를 받아 자료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에서 자료집을 준비할 때 현재 추진 중인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 용역 수행업체에서 도움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 생각은 다음 회의 때에는 일단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 관련 수행 용역사에서 참여토록 도움을 요청하여 현재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행을 해보면서 이 기술지원단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분들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해야 할 시나리오워크숍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미리 검토하시고 다음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 위원분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인 ‘(주)자광’이라는 회사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에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추가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그 부분은 (주)자광의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